

사탄 불가침

작성일 : 2012. 6. 6. (금) 새벽 2시

작성자 : 주청명

사랑아.

나 선생이다.

사랑아. 오늘은 사탄에 대한 교육이다.

사탄은 네 곁에 있다.

은밀히, 그리고 대놓고!

그들이 짝을 이루어 다니는 것은 알고 있지?

최근에는 조를 이뤄 다니고 있다.

마지막이니, 더 크게 방해하려 몸부림이다.

사랑아.

네 삶 가운데 널 줄게 하는 것, 지치게 하는 것,

이 정도는 팬찮겠지 하는 것, 분쟁케 하는 것,

선생 나 오해하는 것,

가지가지 부정적인 모든 역사는

모두 사탄으로부터 시작한다.

(베마른 땅에 한 키 큰 남자가 걸어 왔습니다. 두 눈이 붉은 그 남자가 저를 찌려보더니 갑자기 낮을 들고 절 죽이려고 막 달려 왔습니다.)

무섭지? 지금 사탄이다.

(한 여군이 흰 갑옷을 입고 그 사탄을 낮으로 허리를 치려고 휘둘렀습니다. 그러나 낮이 무더 사탄 허리에 낮이 걸려 있었습니다. 그 여군도 사탄도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.)

이런 자들 섭리에 많다.

말씀의 칼날을 갈아라.

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.

정신의 칼날을 갈아라.

오직 나만 집중해서 보아라.

네 삶의 칼을 갈아라.

오직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.

사랑아..

(선생님께서 군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탄의 머리를 맨 손으로 치시니 머리가 떨어져나갔습니다. 정

말 멧졌습니다.)

내 이름으로 간구해라. 날 불러.

너희 정신으로 안 될 때는 날 불러라. 함께하자.

(그래도 저희가 정신의 칼 더 스스로 날카롭게 하여 지켜야죠?)

칼도 내게 받아,

내가 주님 통해 받아 준 말씀으로

날카롭게 갈아 사랑으로 힘을 키워라.

그러니 내가 꼭 도와주지 않아도

이미 내 도움으로 네가 칼 받고 힘 얻었으니

그것 또한 나를 부른 것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.

감당할 만한 것은 감당하나

시험이 오거나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

영 &#8228; 육으로 날 불러라.

내가 보낸 자와 일체 되어라. 사랑한다.

사랑하여 영계 실상 밝힌 선생.